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신향락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와의 관계는 적어도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이 정도(正道)로 보인다.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된다에 예가다. 주민의 대의기구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가 고압적인 자세로 군림하려 들거나, 역으로 집행부가 '당근'을 내세워 의회를 입맛대로 쥐락펴락하려 든다면 그 지자체는 결코 정상일 수 없다.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

지방자치 실시 이후 민선 4기까지 우리는 후자를 익히 경험해 왔다. 의회가 민주당 일색인데다 의원들이 제 소임은 뒷전인 채 '이해'에 얽히다 보니 '무늬만 의회'로 전락했던 셈이다.

놓고 양측이 예산과 거래하려다 무산되면 서 갈등의 골을 키웠다. 금년 2월 시가 의회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세계인권도시포럼과 관련된 윤 의장이 "의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것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달 홍진태 자치행정국장이 흥인화 의원에게 막말과 협박성 발언으로 시의회에서 공식 사과했지만 그 촉박은 연계된 감정 대립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어려울 것이다.

실적하지 못하고, 의회 역시 설득력이 없다는 이유로 잇따라 예산을 삭감해 애웃은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광주시민은 물론 외지인들이 무등산과 그 주변을 좀더 가까이서,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무등산순환버스 운행이 예산 삭감으로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 수년째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광주시터투어버스도 예산이 잘려 나가 운행이 불투명하다.

이 주된 요인이다. 의회는 요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 삭감 이유였지만 시가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하지 않은데 따른 양측의 감정 대립이라는 얘기가.

강운태 시장 취임 일정 새겨야

지금 광주시는 모든 게 최악의 상황이다. 지역경제가 어렵고, 재정은 밑바닥이다. 하계U대회 준비, 군 공방 문제, 구도심 공동화 등 산적한 현안이 수도룩하다. 상생으로 가도 힘겨운 판에 힘겨투기로 맞서고 있으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목에 힘을 주고, 예산을 무기로 집행부에 군림하려 든다면 그건 때를 모르는 착각이다. 의원의 60%가 새 얼굴로, 초심(初心)을 잃지 않는 건전한 긴장관계 유지가 최선이다. 스스로 자정능력을 키워주지 않는 한 3년 후 새로운 물결이든 자멸하다.

은펜클럽



서미정

매년 열리는 지적장애인복지증진대회가 며칠 전 남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지적장애인이 자기권리주장대회 지역예선과 지적장애인 작품전시회도 시민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함께 실시되었다.

지적장애인 자립 희망 '맞춤형 일자리'

기 등)과 함께 선보였다. 노래를 부르며 기분이 상쾌해져서 나는 가수다에 도전장을 낸 지적장애여성 L양, 볼링선수가 되기 위해 체중도 조절하고 지구력, 손발력, 유연성도 키우겠다고 다부진 꿈을 발표하는 O군, 피아노 콩쿠르에 나가 상을 많이 받은 경험을 자랑하며 피아니스트의 꿈을 가진 멋진 J군, 돈을 벌어 아픈사 랑과 불우이웃을 돕는데 쓰고 싶었던 N군, 화재로 위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소방관을 꿈꾸는 C군, 몸이 불편한 학생들을 위해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 K양, 사회 복지사의 꿈을 향해 직업재활 현장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O군 등.

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용안정화가 되어 있지만,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에 따라 고용현실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사례 1> P(48·지적장애 3급)씨는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일터를 연계해 보지만 쉽지 않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일을 해야 하는데"라는 말을 되풀이한다. P씨는 돈을 모아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키우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소망이 있다. 어려서부터 시골농장일과 벽돌공장에서 육체적 노동을 오랫동안 해서인지 이제는 몸이 자꾸 아파서 힘든 일은 할 수 없는 상태다.

다. 지금은 보조작업장에 다니고 있으며 한 달 꼬박 일해서 버는 돈은 10만원 정도다. 버스비와 점심비용을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다. 놀지 않고 그나마 다닐 수 있는 일자리라도 있으니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며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네는 사람들도 있다. 단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재능과 욕구는 무시한 채 3D업종과 단순생산직, 제과제빵 등의 제한된 직업훈련과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 조건, 열악한 근로현장을 강요받는 이들이 부지기수다.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클럽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클럽을 신는 코너입니다.

기고



나강문

최근 들어 일기에보는 연일 '비' 또는 '호림'을 예보하고 있고 빨래와 세탁지수는 낮다. 비가 오지 않으면 후텁지근한 날씨로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날들이 이어진다. 이런 날은 웬지 모르게 기분마저 처지고 일들도 잘 풀리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운이 좋은 사람은 재난을 예방할 줄 안다

진 동전 하나라도 발견할라치면 운 좋은 하루를 기대한다. 그런데 운이 좋지 않을 때는 마치 머피의 법칙처럼 좋지 않은 일만 연달아 일어난다. 운이아말로 '끌어 당기는 법칙'이 적용되는 것 같다.

바뀌 재도전을 한다는 것이다. 삼성그룹을 세운 호암 이병철 회장은 생전에 자주 북으로 '운(運)', '돈(鎊)', '근(根)'의 글씨를 써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했다고 한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운(運)이 따라야 하고, 당장 운이 없으면 우직하게(鈍) 기다릴 줄 알아야 하며, 운이 닳더라도 끈기(根, 끈성)가 있어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가르침이란다.

생태계 보전 위해 외국산 과일 반입 자제해야

최근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오던 중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할 때쯤이었다. 출국 때와 마찬가지로 귀국 때에도 귀국신고서를 쓰게 된다. 그런데 옆 자리에 앉은 한 부부가 나지막이 하는 말이 들렸다.

몇 개만이라도 안 되겠느냐"고 요청했다. 직원은 "국내에 유입될 수 없습니다"라고 재차 친절하게 설명했다. 외국산 과일은 국내 식물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자칫 병충해가 퍼질 우려가 있어 정식 절차 없이는 국내 반입이 금지돼 있다. 만약 과일에 유충이 기생하고 있다면 국내에 들어 온 뒤 농촌으로 퍼진다면 그 피해는 막대할 것이다.

시설

4년 앞 U대회 국비 지원이 관건이다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먼저, 시설 및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과 기업 스폰서를 얼마나 이끌어 내느냐가 관건이다. 재정이 극히 열악한 광주시로서 '적자 대회'를 치른다면 그만큼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업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 지원과 대기업 스폰서를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느냐에 따라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광주시는 U대회 후자 달성을 위해 중장기 재원마련 방안을 서둘러 수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1000대 기업 단 28곳, 참담한 지역 현실

국내 1000대 기업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기업은 28곳뿐이라고 한다. 100대 기업에는 단 1개 기업만이 이름을 올렸다. 지역기업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단적으로 드러낸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기업이 살아야 하고 유망 대·중기업의 유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지자체와 지역민이 합심해 올인 해야 한다. 노사문화의 선진화, SOC 시설의 확충 노력은 무말할 나위 없다. 무엇보다 지역민의 기업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無等鼓

동서고금을 통해 절대권력의 주변에는 권신(權臣)이 발호하게 마련이다. 청의 5대 황제인 건륭제는 청의 마지막 태평성대를 장식한 명군이다. 하지만, 그런 건륭제도 집권 후반기에는 천하 제일의 간신으로 불리는 '화신(和珅)'을 비호함으로써 결국 청의 쇠락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주간지 뉴스오브더월드(NoW)가 끝내 폐간된다는 보도다. '미디어 황제' 푸루트 머독 소유인 NoW의 전 편집장으로 서, 도청 논란의 중심에 선 레베카 브룩스는 머독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며 승승장구 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미웠던 부하직인 때문에, 평생 쌓아올린 미디어 제국이 흔들리게 된 셈이다.

호가호위(狐假虎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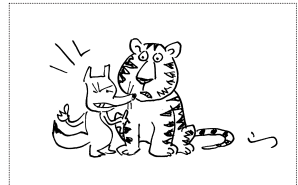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website details.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중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